

## 開放化時代의 水産經濟學의 課題\*

李 承 來\*\*

The Problem of Fisheries Economics Arising from the Liberalization of Korean Economy

Lee, Seung - Rae

| 目 次                      |                     |
|--------------------------|---------------------|
| I. 序 論                   | 2. 韓國 漁業經濟學의 具體的 課題 |
| II. 開放化時代의 漁業 및 漁村의 役割變化 | IV. 漁業經濟學의 展開方向     |
| 1. 開放化의 意味               | 1. 漁業經濟學의 體系化 方向    |
| 2. 漁業 및 漁村의 役割과 漁業問題의 變化 | 2. 教科課程의 展開方向       |
| III. 漁業經濟學의 課題           | V. 結 論              |
| 1. 漁業經濟學의 役割과 基本的 課題     | 참고문헌                |
|                          | Summary             |

### I. 序 論

國民經濟가 成長發展함에 따라 漁業에도 여러가지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 漁業이 절대적으로 成長함에도 불구하고 他産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衰退産業의 길을 면키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때문에 漁業은 國民經濟내에서 産業間의 不均衡問題가 야기될 뿐만아니라 漁業內部에서도 業種間 심한 不均衡을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産業間, 業種間의 二重構造變化는 漁民所得을 低下시킬 뿐 만 아니라 都市와 漁村間의 生活與件의 격차를 초래함으로써 離漁現象이 加速化되어 漁村空洞化現象을 深化시켜왔던 것이다. 이와같이 韓國의 漁業은 世界漁業國중에서 先進國水準으로 發展한 반면에 漁民은 가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奇現象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1977年을 元年으로 하는 海洋의 200해리時代를 맞이하면서 公海自由의 原則이 무너짐으로써 遠洋漁業은 漁場確保問題가 큰 課題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沿岸漁業에서도 그 동안 무분별한 漁獲努力增大政策에 의해 資源이 거의 枯竭狀態에 이르고 있다. 또한 工業化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漁場汚染問題도 아주 심각한 상태이다. 이와같이 漁業生産條件이 惡化됨과 동시에 현

\* 本論文은 1991年度 大學教授 海外派遣計劃에 의해 研究되었음.

\*\* 釜山水産大學校 資源經濟學科 教授

재에는 水産物輸入自由化論議마저 대두되고 있으며, 1997년까지는 전 品目이 輸入自由化될 전망이다. 이와같은 漁業의 開放化 時代에 漁民들은 더욱 상대적인 위축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漁業에 불어닥친 國內外的인 危機를 社會科學的 측면에서 漁業經濟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課題로 등장하게 된다. 漁業經濟關係研究者들은 漁業의 維持發展이 漁業經濟學發展의 前提임을 인식하고 이 問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활발한 研究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듯한 감도 없지 않은 형편이다. 다행히도 최근 水産業=水界産業이라 하여 水産業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도 되고 있다<sup>1)</sup>. 그러나 이러한 試圖은 본래의 水産業과의 用語혼란을 가져올 우려도 있고, 學問的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檢討도 필요하다. 이러한 우려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 研究에서는 가능한 한 원래의 의미를 지닌 漁業이란 용어를 사용키로 한다.

時代가 變化함에 따라 漁業問題도 變化한다. 이를 정확히 제때에 파악하여 對策을 세우지 못하면 漁業은 더욱 상대적으로 衰退할 수 밖에 없다. 본 研究는 이러한 多重的인 漁業問題중 특히 沿岸漁業과 漁村問題에 대한 적극적인 解明이라는 의도하에서 시도하여 보았다. 그러나 研究課題가 너무 방만하여 內容자체가 理論的이고 幻想的으로 호를 우려마저 없지 않다. 그러나 언젠가는 누구에 의해서라도 한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問題라고 생각해 왔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漁業經濟學 課題에 관한 구체적인 代案은 추후 研究課題로 넘기기로 한다.

## Ⅱ. 開放化時代의 漁業 및 漁村의 役割變化

### 1. 開放化의 의미

開放化 또는 國際化란 원래 “고유의 主體性을 가진 하나의 國民이나 民族을 가능한한 마찰없이 國際的인 위치를 정립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이와같이 國際化란 의미에는 國民 내지 民族, 가장 마찰이 적은 형태, 國際的인 위치를 定立시킨다는 3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여기에서 國民 내지 民族이란 주체의 問題이다. 마찰이 적다는 것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的인 모든 마찰을 가능한 한 적은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政治的인 意思疏通이라든가 相互理解 또는 文化理解라는 課題가 나타난다. 끝으로 國際的인 위치를 정립시킨다는 것은 국토라는 장소적인 위치와 역사적인 시간축에 따른 변화발전이란 시간적인 위치를 정립시키는 問題가 존재한다.

이러한 開放化내지 國際化를 하나의 社會變化과정으로 파악한다면 “國際化란 어느 國民의 해외에서의 活動範圍가 物理的 또는 社會的으로 확대되고 동시에 국내에서도 해외의 문물을 도입하려는 사회적 필요가 높아져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여기에서 문화접촉의 問題가 생기고, 그 결과 외

1) 張設鎬, “水産業=水系産業 分野에 대하여”, 『水産經營論集』, Vol. 20, No. 1, 1989. 6. pp. 1-16.

2) 矢野暢, 『國際化의 의미』, NHKフックス, 1986, p. 160.

3) Ibid., p. 166.

국과의 교제를 위해 필요한 제 규칙이 형성된다. 이것이 사회에 정착하면서 시민의 의식이 開放化되어 가는 것이다. 이와같이 國際化란 文化變容의 問題까지 포함하는 아주 광범위한 사회과정인 것이다.

· 이를 좁혀 狹義의 개념으로서 생각해 보면 “國際化란 諸國家間에 相互依存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생기는 社會的 政策的 問題의 새로운 趨勢(trend)”라고 할 수 있다<sup>4)</sup>. 이때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國際化가 어느 主體에 의한 노력의 결과로 발생하고 있는나의 문제이다. 즉 國際化가 自己의 判斷과 理念의 確信에 의한 自己主導型이나 아니면 外壓에 의하여 강요되어진 他律的인 것이냐의 問題이다. 만약 他律的인 것이라면 그것은 불합리한 形態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둘째는 國際化의 深化速度와 進展內容간의 均衡問題이다. 특정 단일내용만의 國際化의 深化는 보통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셋째는 國際化의 制度的 文化的 대응의 問題이다. 國際化가 進展됨에 따라 그에 맞는 새로운 制度的 장치의 마련되어 문화적 마찰을 억제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훌륭히 國際化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問題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韓國의 農水産物輸入過程을 보면, 첫째로 開放化주체가 他律的이고, 둘째로 開放化의 속도가 너무 빠르며, 셋째로 開放化에 따르는 制度的 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국가전략으로서의 國際化 즉 바람직한 國際的 位置를 定立시키기 위해 만들어는 시나리오에 의해 실현된 國際化가 아니다. 다만 客觀的인 現象으로서의 國際化壓力일 뿐이다. 日本農業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입장에 놓여 있다.

日本農業의 입장에서 國際化를 정의한 것을 보면 外壓에 의한 國際化임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sup>5)</sup>. “農業에 대해서는 農産物의 國際貿易自由化가 강요되고 국경보호조치 뿐만아니라 국내보호조치까지도 GATT의 체제하에서 부정하려고 하는 갈림길에서 농산물의 國際市場에서의 自由競爭化와 國內市場에서의 自由競爭化가 연동해서 進行되고 있는 時代”라고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農業이외의 부문에서는 “2회에 걸친 석유위기와 그 이후 G-7의 합의에 의한 엔고 달러 安定體制에 의하여 外生的으로 국내 商工業의 國際競爭力を 弱화시키는 조건이 形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商工業은 自由貿易體制를 전부 활용하면서 다양한 經營革新을 꾀하여 國際競爭력을 비약시킨 時代”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他律的인 國際化가 심각한 産業간의 不均衡을 초래함으로써 國際化의 均衡問題가 심각한 課題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國際化로 인하여 日本농업은 ① 離農現象으로 農業勞動의 高齡化 및 後繼者不足問題를 유발시키고, ② 都市와 農村間的 人구의 過疏.過密問題와 經濟的 地域隔差問題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農業의 農産物市場條件과 더불어 土地, 勞動, 資本財市場의 地域的 隔差를 더욱 加速的으로 擴大시키고 있다. ③ 國民전체의 생활가치관의 變化 특히 農業에 대한 3D현상으로 農業을 기피하고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나쁜 영향까지 미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상당히 장기화될 것으로 豫想되는 것이다.

이러한 日本農業에 있어서의 國際化定義와 그 波及效果가 내용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韓國

4) Ibid., p. 167.

5) 賴平, 「國際化時代의 農業經濟學」, 富民協會, 1992, p. 488.

의 農漁業에 있어서도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漁業의 경우는 그 발전의 전제가 遠洋漁場開拓이었고, 이것이 重化學工業發展과 연계되어 가능하였기 때문에 農業과는 달리 일찍이 國際化問題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러나 公海自由의 원칙에서 200해리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리고 최근에는 水産物輸入自由化問題가 대두되면서 農業과 같이 韓國의 漁業도 심각한 漁業 및 漁村問題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國際化가 진전됨에 따라 漁業도 이에 상응한 制度的 文化的인 對應措置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時代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 2. 漁業 및 漁村의 役割과 漁業問題의 變化

### 가. 漁業, 漁村의 役割變化

國民經濟의 발전과 더불어 國際化가 진전됨에 따라 漁業 및 어촌의 役割도 다양화하고 복잡화하여 간다. 인간의 생활공간을 3가지 측면에서 分類해 본다면 自然, 生産(經濟), 生活部門으로 나눌 수 있다. 漁業이나 漁村을 自然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生態的 役割, 生産면에서 볼 때에는 經濟적 役割, 生活면에서 볼 때에는 社會文化的 役割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3가지 측면을 통합해서 국가, 지역, 가족이라는 주체별로 분류해서 논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기능별로 간단히 설명해 보고자 한다<sup>6)</sup>.

經濟적 役割로서는 안정하고 안전한 食糧供給과 地域經濟振興上의 役割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모든 1차産業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食糧의 安全保障의 役割이다. 지난 10여년간 세계의 食糧需給은 緩和基調를 보이고 있고, 특히 1980년대부터는 國際穀物市場價格이 대폭적으로 저하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인구가 다시 증가를 계속하고 있는 21세기를 생각할 때 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특히 각국이 수행하고 있는 國內自給率 향상정책과 生産量에 비하여 무역량의 비율이 적다는 國際農産物市場의 특징으로 부터 판단해 볼 때 農産物價格의 변동은 상당히 클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것이다. 水産物도 農産物과 더불어 國民의 食량을 안정적으로 供給하고 地域經濟活性化에 중요한 役割을 수행해 왔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生態的 役割로서는 국토보존 및 生活環境保全機能과 資源保存的 漁業의 可能性 追求를 들 수 있다. 漁村이 農村과 더불어 國土의 均衡있는 發展이란 관점에서 地域社會의 活性化에 중요한 役割을 수행하고 있다. 漁業이 과다한 漁獲勞力增大로 資源枯竭의 위험성을 초래하고, 漁業활동에 따른 漁業系廢棄物의 투기로 漁場汚染을 加重시킨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食品의 安全性과 環境保全에 대한 國民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漁業은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多方面에서 중요한 役割을 수행하고 있다. 즉 漁民들은 重金屬이나 有害化學物質 등에 의한 어패류의 오염을 방지하고, 赤潮나 放油에 의한 漁業피해를 방지하고, 沿岸의 大規模工事로 인한 漁場環境에 미치는 영향을 最少化하도록 실천하고 감시하는 役割을 수행함으로써 海洋環境을 保全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社會·文化的 役割로서 社會의 安定性, 多樣性, 永續性을 추구하여 갈 뿐만 아니라 社會的交流, 福祉的 機能과 어린이의 教育的 機能 그리고 人間性回復의 場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6) 祖田修, "日本經濟의 展開と 農業, 農村의 新役割", 「農林業問題研究」, 85號, 1986. 12. p. 13.

開放化時代의 水産經濟學의 課題

<표 II - 1>

漁業의 役割과 問題의 變化

| 國民經濟<br>發展段階 | 停滯期<br>( '45 - '61) | 高度成長前期<br>( '62 - '76) | 高度成長後期<br>( '77 - '88)      | 安定成長期<br>( '89 - )                     |
|--------------|---------------------|------------------------|-----------------------------|--|
| 漁業部門         | 戰後復舊期               | 漁場擴大期                  | 200해리時代                     | 國際化時代                                  |
| 漁業, 漁村의 役割   | 生存維持                | 生活維持<br>生存維持           | 生態維持<br>生活維持<br>生存維持        | 社會文化維持<br>生態維持<br>生活維持<br>生存維持         |
| 水産物의 性質      | 副食品                 | 輸出商品<br>副食品            | 嗜好外食用品<br>加工輸出商品<br>副食品     | 健康食品<br>嗜好外食用品<br>加工輸出商品<br>副食品        |
| 漁業 政策의 課題    | 生産增大                | 輸出增大<br>生産增大           | 流通近代化<br>輸出增大<br>生産增大       | 國際化對應<br>流通近代化<br>輸出增大<br>生産增大         |
| 漁業 問題        | 效率性提高               | 漁村의 空洞化<br>效率性提高       | 漁場의 空洞化<br>漁村의 空洞化<br>效率性提高 | 漁業政策空洞化<br>漁場의 空洞化<br>漁村의 空洞化<br>效率性提高 |

있다. 더 나아가 國際的 役割로서 地域的 交流와 더불어 發展途上國에 대한 食糧 및 漁業技術面에서 의 協力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漁業 및 漁村이 國民經濟내에서 수행하는 役割이 극히 廣範圍하고 多樣한 것이다. 이것이 經濟가 發展함에 따라 그 機能의 중점이 變化하면서 漁業 및 漁村의 役割이 多元化되고 重層化되어 가고 있다. <표 II -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의 漁業은 다만 生存水準上의 經濟的 役割만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高度成長期에 접어들면서 生存水準의 단계를 넘어서 生活水準上의 經濟的 役割을 수행하여 왔던 것이다. 高度成長後期에 들어와서는 公害問題가 多發함에 따라 漁業도 生態的 役割이 強調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에는 都市와 地域問題를 반영해서 漁村의 社會文化的 역할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금후의 國際化時代에는 國際的 역할이 강조됨은 물론 社會가 점점 技術이 高度化 되고 情報化됨에 따라 그리고 高齡化社會가 進척됨에 따라 人間과 社會가 無機的으로 中斷되기 쉽다. 이럴 경우 漁業 및 漁村은 人間活動에 다양성과 人間性回復을 약속하는 귀중한 장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 漁業問題의 變化

이러한 漁業 및 漁村의 役割이 변화함에 따라 水産物의 성질도 변하게 되었다. 漁業이 生存維持機能을 수행할때에는 食糧政策의 일환으로서 副食品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함으로써 어민의 生存을 가능케 하였던 것이다. 經濟成長期에 들어와서는 水産物이 食糧政策에서 벗어나 중요한 외화획득원으로서 역할을 수행 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漁場의 外延的 擴大政策을 유인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으며, 그 役割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國民所得이 증가하고 國民의 消費構造가

高級化되고 多樣化함에 따라 高度成長後期에는 嗜好食品으로 변하면서 外食需要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것이 최근에는 健康食品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農産物과는 달리 계속 需要가 증가하여 水産業의 展望을 밝게 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漁業政策의 課題도 변하게 되었다. 輸出需要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增産일변도의 生産政策으로 일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生産物중 高級品을 중심으로 먼저 輸出需要에 응하고 난 剩餘가 國內消費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水産物의 수출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方案의 하나로 漁民과 水産資源의 保護라는 미명하에 水産資源保護令을 동원하여 產地流通體制의 확립이 불가피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후 經濟成長에 따른 國民所得의 증가와 더불어 輸出一邊倒의 熱氣가 진정되고 內需가 증대함에 따라 다시 食糧政策의 일환으로 還元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國民生活의 安定과 零細漁民의 所得增大를 위하여 內陸地流通의 效率性增大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6년 12월에는 農水産物 流通 및 價格安定法의 제정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앞으로의 國際化時代에는 國民의 水産物에 대한 강한 需要慾求를 어떻게 漁民의 被害를 最少化하면서 充足시킬 수 있는지의 問題, 즉 國際化의 대응이 가장 중요한 政策課題이다.

이상과 같이 漁業의 기능과 役割, 水産物의 性質 및 漁業政策의 중점이 변화하면서 漁業問題도 따라서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生産의 效率性만을 추구한 결과 漁村의 空洞化와 漁場의 荒廢化로 인한 魚資源의 空洞化現象을 초래하여 漁業이 危急存亡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여기에 漁業政策의 硬直性으로 인한 탄력적인 對應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漁業問題를 더욱 加重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漁業은 國民들의 水産物에 대한 需要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한 供給측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갈다면 回生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여 갈 것인가가 漁業經濟學의 최대의 課題인 것이다.

### Ⅲ. 漁業經濟學의 課題

#### 1. 漁業經濟學의 役割과 基本的 課題

漁業의 지위와 役割에 달라짐에 따라 漁業問題의 성격도 단순한 産業生産의 장에서 인간다운 生活의 장으로 變化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찰하였다. 그렇다면 漁業經濟學者는 과연 이러한 漁業問題를 얼마나 認識하고 있으며, 이를 解明하기 위하여 어느정도 努力을 하였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漁業經濟學이란 漁業이라고 하는 특정 産業의 經濟問題를 解明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學問이다. 즉 産業經濟學의 일분야이며, 産業經濟學의 公同의 方法論的基礎는 經濟理論인 것이다. 그러나 각 産業마다 일반經濟理論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獨自의인 特性을 지니고 있기때문에 독자적인 基礎理論의 정립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工業經濟學이나 商業經濟學이 漁業이나 農業經濟學처럼 독자적의 學問으로 발전하지 않은 것은 一般經濟理論이 이들 産業의 經濟活動에 기초를 두고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漁業經濟學도 다른 産業의 經濟學과 마찬가지로 科學으로의 사회적요청에 對應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學問의 實用科學化이고 現實問題解決에 유익하고 유용한 學問의 자세가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현실의 漁業問題가 심각하면 할수록 더 한층 강하여 진다. 일반적으로 社會科學의 自然科學化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것은 學問의 實用科學化라는 흐름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을 거부하고 學問의 세계에만 안주하는 것이 허용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漁業經濟學이 진실로 實用科學化를 지향한다면 급하면 돌아가라는 속담처럼 學問의 세계에 몰두해서 漁業의 經濟現象을 둘러싸고 있는 因果關係를 냉철히 추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漁業問題를 명확히 발견하고 진단할 수 있어야만 정확한 처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漁業經濟學이 應用經濟學이고 實踐科學을 지향하는 한 漁業經濟學은 현실적인 研究課題의 認識力 내지 發見力과 그 課題의 解決力 내지 對應力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축되지 않으면 안된다<sup>7)</sup>. 이것이 開放化시대의 漁業經濟學의 기본적 課題라고 생각한다. 前者는 무엇이 研究할 가치가 있는 課題인가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는 研究者의 能力을 일컫는 말이다. 즉 이것은 時代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漁業問題의 소재를 研究者가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能力을 의미한다. 이러한 能力은 研究者가 항상 漁業現實과의 밀접한 긴장감을 유지함으로써만이 가능한 것이다. 後者는 研究者가 研究課題의 성격에 따라 유효적절한 方法論을 찾아내고 開發할 수 있는 能力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理論開發이 진행되고 있는 일반 經濟理論의 학습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기초로한 漁業의 특수한 經濟現象에 대한 因果關係解明型=漁業經濟理論構築型 연구가 중요시 되는 것이다.

## 2. 韓國漁業經濟學의 具體的 課題

學問의 實用化라는 應用經濟學의 추세속에서 現實의 漁業問題의 해명이라는 漁業經濟學의 기본적인 課題를 전제로 우리나라 漁業經濟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課題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漁業問題가 다양화하고 重層化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漁業經濟研究者들의 획기적인 思考의 轉換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消費의 重點的 研究

어떤 産業이든간 生産이 그 産業의 중심요체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漁業의 경우 현재의 生産水準을 대폭적으로 증대시키는 데에는 그 한계가 있음을 이미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漁民을 보호하면서 漁業을 계속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生産의 效率性追求 연구에서 소비자의 效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의 思考의 轉換이 필요한 것 같다. 즉 漁民만을 상대로 한 研究에서 소비자중심의 研究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져야 한다. 國民의 厚生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漁業이 發展되지 않으면 農業처럼 産業의 存立基盤을 상실할 우려마저 없지 않은 것이다. 國民에게 安定하

7) 賴平, 前掲書, p. 494.

고 안전한 식품을 염가로 供給한다는 食糧政策의 측면에서의 需要增大策에 관한 研究가 중요하다.

한편 漁場도 단순한 生産의 場에서 生産과 消費의 共存의 場으로 이용하는 바다의 多面的 이용방향으로의 研究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科學技術의 발달에 힘입어 전 세계가 海洋資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未來産業으로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어 漁業에서도 漁業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바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즉 漁業經濟學의 구조내에서 바다의 多面的 利用方案에 관한 研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需要의 측면에서 水産物輸入問題도 다시한번 再檢討해 보아야 할 課題이다. 대부분의 漁業關係者들은 漁民保護를 위해 水産物輸入을 禁止해야한다는 견해인것 같으나, 이것은 너무 短見인것 같다. 오히려 漁民을 위하고 漁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輸入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한다. 農業의 경우는 農産物이 輸入되면 産業基盤이 전부 무너져 머리고 만다. 그러나 漁業의 경우는 水産物이 輸入되면 단기적으로는 魚價하락으로 漁民生活에 위협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漁業資源을 증대시킬 수있기 때문에 漁業을 再生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漁民도 보호하면서 동시에 消費者의 厚生을 증대시키고 소비자가 漁業의 사정을 이해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研究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國家는 漁民을 보호해야 하는가에 관한 명확한 理論定立과 이에 대한 國民의 理解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끝으로 水産物需要增大에 따른 國內供給增大方案도 계속 연구되어져야 한다. 우선 漁業政策當局은 물론 모든 漁業關聯者들은 漁業 그 중에서도 특히 增·養殖業은 高度先進國의 技術集約의인 産業이란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같은 海洋環境條件下에서 現在의 養殖魚種으로서는 國際競爭力을 확보할 수 없다. 現在와 같은 熱帶 내지 溫帶性魚種의 양식에는 海水온도가 부적합할 뿐만아니라 養殖先進國에 비해 技術水準도 낙후되어 있다. 우리나라 漁場條件에 맞는 魚種開發과 이에 따른 飼料開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식전망도 밝은 편이 아니다. 養殖業은 무기물을 生産하는 일반工業보다도 훨씬 많은 時間과 投資와 勞力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産業性을 추구해서는 아니된다. 때문에 漁業은 高度先進社會의 國民福祉産業중의 하나인 것이다. 政策當局은 이러한 사실을 認識하고 漁業의 社會文化的 측면에서 漁業의 役割을 國民에게 理解시킴과 동시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漁業의 研究開發投資에 집중적인 支援體制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나. 綜合地域開發計劃의 一環으로서의 漁村開發

工業위주의 經濟開發의 結果가 産業간의 不均衡과 이에 따른 都·農漁村間의 地域隔差를 가져와 農漁村社會의 空洞化現象을 초래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결과 農漁村人口의 激減, 農漁家로서의 繼承의 脆弱性, 農漁家 人口가 高齡化되었을 뿐 만 아니라 農漁民 各자의 個別化, 分斷化, 孤立化되어 農촌사회가 전통적 美德으로 갖고 있던 團結性, 連帶性, 相扶相助의 정신마저 弱화되고 말았다. 이러한 空洞化에 고민하는 漁村社會에 요즈음은 外部資本 의한 養殖場이나 레 - 저設施의 開發이라는 명목하에 漁村의 自然과 文化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漁村問題도 빈곤으로 부터의 해방에서 이젠 어떻게 하면 활력있는 漁村社會를 만들수 있겠는가에 초점이 돌려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어촌의 役割을 고려해 볼때 漁村社會의 재편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한나라의 經濟가 社會적으로 安定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교훈으로서 균형있는 國民經濟를 끊임없이 유지하려는 노력이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된다<sup>8)</sup>. 漁村의 活性化問題는 漁業만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새롭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漁民所得만 향상시킨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인식해야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都市人과 같은 정도의 인간다운 生活을 유지할 수 있는 生活環境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漁村開發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國土綜合開發計劃下에서 體系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國土綜合開發計劃下에서 地域綜合開發計劃이 이루어지고, 이計劃에 의거해서 그 지방의 經濟, 社會, 文化的 資源과 연계된 漁村開發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산재되어 있는 모든 漁村을 모두 開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낭비일 뿐만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종합적인 地域開發計劃과 연계된 거점개발방식의 漁村開發에 관한 研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政策意志가 필요한 것이다. 工業과 農漁業을 단순히 效率性이라는 기준만으로 비교한다면 工業등이 결정적으로 유리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農漁業 더 나아가서 農漁村이 수행하는 役割을 社會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정부는 농어촌에 얼마만큼의 人口가 남아야 하는가가 問題가 아니라 국가전체 人口의 몇 %가 農漁村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를 우선 먼저 政策的으로 결정해야 한다<sup>9)</sup>. 이러한 決定目標하에서 漁業과 關聯産業을 모든 地域資源과 연계시켜 地域産業으로서 육성한다고 하는 政策的 視野를 가지고 漁村問題를 해결하는 것이 漁業經濟學의 중요한 課題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 다. 資源保存을 위한 漁場制度改革

漁場制度는 漁業生産을 위한 어장이용과 資源保存에 대한 질서이다. 漁業이 산업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資源의 枯渴을 초래하지 않도록 漁獲規制와 資源의 維持管理가 필요하다. 그리고 각자의 漁撈活動이 서로 다른 어로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規制하고 排除하는 일정한 秩序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日本은 다양한 漁業慣行을 로마법 原理로 編成하여 놓은 것이 바로 일본의 漁業法이다. 이를 우리나라는 아무런 거름도 없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그 결과 일본이나 韓國 모두가 漁場의 資源枯渴問題로 産業 자체가 存廢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後進國에서는 發展期間을 단축하기 위하여 先進國의 技術과 制度를 導入하기 마련이다. 이 중 科學技術은 그 기술에 필요한 자연적인 여건만 마련해주면 先後進國間的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움직여 간다. 그러나 制度는 각 나라 마다의 歷史, 文化 및 社會經濟的인 조건의 차이때문에 의도한대로 그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一例로 일본에서는 共同漁業權制度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國民性에 비추어 볼때 본인의 판단으로서는 성공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先進國의 制度가 하나의 參考事項은 될지언정 그대로 모방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는 우리

8) 八木庸夫, 「漁民」, 北斗書房, 1992, p. 118.

9) 宇澤弘文, 「自由化命題と農業問題」, 「農業と經濟」, 1989, 臨時增刊號, pp. 21 - 22.

실정에 맞는 制度를 스스로 研究開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200해리 시대를 맞이하여 沿岸海漁場의 고도의 多面的利用이 不可缺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漁場制度를 일층 다면적으로 擴大한다는 관점에서 沿岸域의 이용질서를 보다 開放的으로 現實에 상응하도록 개편하여 가는 研究도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沿岸漁場만이라도 資源, 海況, 海底 등 어장 및 漁場環境調查를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과학적인 기초자료에 의거해서 근본적인 制度改革과 적극적인 資源對策이 이루어져야 한다. 종래의 制度에 의거한 許可 및 免許의 전면적인 再檢討가 불가피한 것이다. 국가가 沿岸漁業만 이라도 기존의 許可 및 免許權을 전부 사들여 일단의 空白狀態下에서 과학적인 資源保存과 經濟性을 고려하여 有料의 허가나 면허권을 交付하는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sup>10)</sup>. 그렇지 않으면 制度改革은 자원이 고갈되어 어민 스스로가 漁業을 포기할 때까지 無限定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단순한 부분적인 制度改善으로는 資源回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制度改革이 이루어 진다면 그에 따르는 資源育成對策, 水協의 機能과 役活 및 流通構造의 개선 등 전면적인 국내 漁業秩序의 再編成問題가 중요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특히 水協이 지금과 같은 委販實績 위주의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한 필연적으로 資源枯竭型 漁業을 加速化시킬 것이다. 前近代의인 漁家가 자본주의적인 經濟社會의 발달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漁業과 漁民을 위한 協同組合으로 水協을 개편해야 한다. 현재의 小資本經營體制의 漁家로서는 資本主義 經營체제하에서 생존할 수 없으며 資源保存도 불가능하다. 沿岸漁業의 생산주체도 漁家經營이 아닌 企業經營으로 유도되어야 하며 이때의 주체가 水協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水協이 연안어업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인 자원보존적인 漁業活動을 할 수 있도록 再編하여 가는 研究도 앞으로의 중요한 研究課題이다. 漁場은 순수한 사유재산인 農地와는 다른 公有財産이기 때문에 漁場制度改革이 農業보다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 라. 國際化의 對應

漁業 특히 遠洋과 近海漁業은 그 자체가 重化學工業化와 國際化에 의해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漁業은 공업과 유사한 성질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200해리 시대를 맞으면서 漁場確保問題와 野生生物保護를 둘러싼 자원보존문제로 성장의 限界에 부딪히고 있다. 遠洋漁業의 生産量이 國內漁業總生産量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食糧供給의 측면에서도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國際情勢의 변화를 예상한 계획적인 再編整備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韓國은 <표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五大洋을 대상으로 많은 業種의 操業이 행하여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國際漁業機構에 加盟하고 있다<표 Ⅲ-2>. 각각의 機構에서 對象資源에 대한 情報의 收集分析 및 評價에 참가하고 資源의 保存管理를 위해 필요한 措置를 취할 때 적극적인 役活을 수행할 수 있는 國際漁業專門家의 育成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國際機構가 설치되어

10) 中樞興, 吉木武一, 「明日の日本水産業」, 海文堂, 1988, p. 262.

開放化時代의 水産經濟學의 課題

<표 III - 1> 業種別 海域別 遠洋漁船 出漁現況 (90년 12월말 현재)

|        | 계     | 태평양 | 대서양 | 인도양 |
|--------|-------|-----|-----|-----|
| 계      | 800 척 | 504 | 203 | 103 |
| 참치독항   | 204   | 142 | 7   | 55  |
| 참치기지   | 72    | 40  | 10  | 22  |
| 참치선망   | 39    | 39  | -   | -   |
| 참치유자망  | 7     | 7   | -   | -   |
| 오징어채낚기 | 88    | 25  | 63  | -   |
| 오징어유자망 | 142   | 142 | -   | -   |
| 북양트롤   | 44    | 44  | -   | -   |
| 기지트롤   | 135   | 60  | 54  | 21  |
| 새우트롤   | 68    | -   | 67  | 1   |
| 기 타    | 11    | 5   | 2   | 4   |

資料：農林水産部, 「農林水産主要統計」, 1991, p. 355.

<표 III - 2> 國際漁業協力現況

|    | 국제어업협정          | 국제어업기구가입            |
|----|-----------------|---------------------|
| 1  | 한·미 어업협정        | FAO 어업위원회(COFI)     |
| 2  | 한·뉴질랜드 어업협정     | 인도태평양어업위원회(IPFC)    |
| 3  | 한·호주 어업협정       | 인도양어업위원회(IOFC)      |
| 4  | 한·일 어업협정        | 중동대서양어업위원회(CECAF)   |
| 5  | 한·모리타니아 어업협정    | 중서대서양어업위원회(WECAFC)  |
| 6  | 한·키리시바 어업협정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
| 7  | 한·불어업에 관한 교환각서  | 국제포경위원회(IWC)        |
| 8  | 한·투발루 어업협정      | 동남대서양어업위원회(ICSEAF)  |
| 9  | 한·북아일랜드 어업협정    |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
| 10 | 한·솔로몬.아일랜드 어업협정 |                     |
| 11 | 한·에쿠아돌 어업협력협정   |                     |
| 12 | 한·러시아 어업협정      |                     |

지 않은 水域과 자원에 대해서도 關係國과의 資源保存을 위한 交渉을 能動的으로 활발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國際研究協力の 分野에 있어서도 필요한 人員과 裝備를 제공하는 등 漁業先進國으로서 필요한 最小限의 貢獻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세계 도처에서는 自國에 의한 어업자원의 利用.開發을 의도하고 200해리 水域을 설정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그러나 이들 자원을 有效하게 이용하고 있지 못한 나라도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대국의 漁業發展과 우리의 漁場確保를 위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월한 漁業技術을 활용해서 國際漁業協力を 강화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合作事業形態 등에 의한 漁業 그 중에서도 특히 養殖業의 해외진출방안도 적극적으로 研究되어야 한다. 이것은 水産物輸入自由化問題에 대처하기 위한 一方案일 수도 있다.

특히 地球環境問題와 어업과의 마찰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海洋環境과 조화된 漁業이 이루어지도록 研究 되어져야 함은 물론 漁業者 自身도 이에 동참토록 하는 方案이 研究되어져야 할 것이다.

## IV. 漁業經濟學의 展開方向

## 1. 漁業經濟學의 體系化 方向

漁業經濟學의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漁業經濟學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체계화하여 전개하여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漁業經濟學에 관한 저서는 水産經營學을 포함해서 1-2권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의 漁業經濟學에 관한 저서를 分析하면서 이를 토대로 한국의 앞으로의 漁業經濟學의 展開方向을 設定해 보고자 한다.

일본도 理論 중심보다는 現實問題解明의 方向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漁業經濟學 名稱의 著書는 많지 않다. 반대로 戰後 漁業經濟에 관한 報告書 및 이를 종합분석한 형태의 單行本은 거의 20여 종 류나 된다. 그 중 近藤康男의 「日本漁業의 經濟構造」란 책이 日本漁業經濟學의 教科書처럼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戰後 日本經濟의 再編成이 끝나고 어업에 있어서는 封建制의 불식과 생산력 향상을 목적으로한 漁業經濟制度改革이 실시된 배경하에서 그 成果를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經濟分析을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은 日本漁業全般을 細分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에 本稿에서는 水産이나 漁業經濟學 제목의 단행본만을 선택하여 1960년대와 1980년대를 比較分析하여 보고자 한다.

<표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岡山清造의 水産經濟學은 漁業經濟의 本質問題가 무엇인가를

&lt;표 IV-1&gt;

漁業經濟學主要著書의 目次構成

| 岡山清造   | 清光照夫, 岩崎壽男   |
|--|--|
| 「水産經濟學」, 1961, 269 p.  | 「水産經濟」, 1982, 268 p.   |
| I. 水産業, 水産經濟, 水産經濟學<br>II. 漁場經濟諸問題<br>III. 漁業勞動의 經濟諸問題   | I. 漁業資源의 經濟分析<br>II. 水産物의 市場에 카니즘<br>III. 漁業所得의 經濟分析<br>IV. 漁業의 構造分析<br>V. 漁業의 現代의 課題  |
| 岩切成郎 등 5명 共著   | 大海原宏 등 14명 共著  |
| 「漁業經濟論」, 1964, 428 p.  | 「現代水産經濟論」, 1982, 415 p.  |
| I. 漁業의 發展構造<br>II. 漁村의 社會構成과 魚價經濟<br>III. 中小資本漁業의 存續形態<br>IV. 獨占資本漁業의 構造<br>V. 漁業勞動과 生産力構造<br>VI. 漁業利潤, 地代와 賃金<br>VII. 水産物流通과 價格形成<br>VIII. 漁業金融論<br>IX. 漁業協同組合論 | I. 漁業資源經濟論<br>II. 漁業技術論<br>III. 漁業構造史論<br>IV. 漁業構造論<br>V. 漁業勞動論<br>VI. 漁業企業論<br>VII. 魚家經營論<br>VIII. 養殖經濟論<br>IX. 水産物市場論<br>X. 漁業金融論<br>XI. 漁業協同組合論<br>XII. 國際漁業論 |

다루고 있다. 그는 학문의 初期에 야기될 수 있는 混亂을 피하기 위하여 概念整理에 중점을 두고 그로부터 漁業經濟學이 과연 어떤 문제를 解明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전형적인 實證經濟學의 교과서이다. 이에 비해 後者의 漁業經濟學은 「日本漁業의 經濟構造」와 같은 형식의 現場分析的인 實用的인 교과서이다. 다만 日本經濟의 고도성장과 漁業에 대한 構造改善政策이 실시된 이후 새로운 經濟發展段階에서 漁業의 資本主義化 정도를 좀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漁業經濟學은 1960년대초에 이미 학문적인 基礎를 마련해 놓았던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漁業經濟分析에서도 近代經濟學的 接近이 시도 되고 있다. 특히 어업경제학에 資源經濟理論이 도입되고, 이와 병행해서 養殖經濟論과 國際漁業論이 도입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경제발전에 따른 어업문제의 重點이 變化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證明해 주고 있는 것이다. 두 책 모두가 제1장에서 어업자원경제론을 다루고 있다. 하나의 産業을 經濟分析할 때 그 産業을 형성하는 基盤의 技術的潛在力과 그의 實現에 관한 基本法則이 중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분야의 특성이 그 産業經濟學의 특성이 되는 것이다. 漁業資源論과 불가분의 關係에 있는 養殖經濟論과 國際漁業論은 200해리 시대의 新海洋秩序를 계기로 더욱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漁業經濟學은 전통적인 경제학의 活動領域內에서 경제발전에 따른 어업의 産業의 特性을 분석하고, 이를 해명하는 것을 基本課題로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반면 政策課題를 제시하고 그 解決方案을 모색하는 형태의 規範經濟學의 접근은 거의 用役事業으로 해결하는 것 같다. 특히 問題解明型研究에서도 공동연구가 많은 관계로 執筆者 마다의 問題認識에 대한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어업문제의 所在와 그 分析의 이론적인 틀과 方法을 체계화 하고 있는 것이 日本漁業經濟學의 학문적인 자세인 것 같다.

특히 전통적인 漁業經濟學에서는 消費問題가 단순한 市場 및 流通기구의 效率化만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消費者에게 가능한 한 저렴한 價格으로 安定하게 水産物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漁業經濟學의 任務가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開放化 時代를 맞으며서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漁場은 물론 水産物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으로 研究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産業이든지 需要가 강하게 존재하는 한 그 産業은 번성할 수 있는 것이며, 漁業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또한 오늘의 漁業問題는 단순한 水産物供給만의 문제가 아니라 社會文化的인 漁村問題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즉 漁業經濟學의 研究는 生産構造상의 諸問題를 넘어서 國土의 均衡發展의 次元에서 어떻게 漁村이 어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場으로서 유지발전 될 수 있는가의 방향으로 領域을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地域發展論이나 漁村社會開發論과 같은 隣接學問의 지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栗原白壽教授는 “政治는 經濟의 集約的表現이고, 사회적관계의 실제적 기초는 經濟關係이기 때문에 經濟와 政治와 社會는 불가분의 입체적 구조로 되어 있다. 때문에 흔히 政治經濟學 또는 社會經濟學이라 불리어지는 것처럼 현실社會의 經濟構造分析은 정치적 및 사회적 관계의 분석에 의하여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政治的 및 社會的關係의 分析 역시 經濟分析

의 토대위에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sup>11)</sup>. 그는 또 “農業經濟學을 농업에 대한 社會經濟的 諸現象과 諸關係의 研究를 대상으로 하는 農村社會經濟學”이라 하면서 農村社會學의 중요성을論하고 있다.

漁業經濟學에서도 어촌에 대한 經濟 및 社會構造를 일관성있게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補助學問으로서 漁村社會學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漁業經濟學의 骨格에 漁村社會學으로 살을 붙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漁村社會學은 어촌의 經濟構造를 기초로해서 漁村社會構造를 과학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사회학적 입장에서부터 漁村經濟構造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면 漁業經濟學과 漁村社會學은 서로 研究方法을 달리하는 異質的인 分科로서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어촌의 경제사회구조가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파악될 수 없기 때문에 漁業經濟學의 分析을 기초로 漁村社會構造를 전개하는 새로운 漁村社會學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개방화시대의 漁業經濟學은 전통적인 이론에다 새로 야기되는 문제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史, 理論, 政策의 方向에서 研究함으로써 漁業經濟問題의 해명과 그 발전방향이 명쾌하게 밝혀지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一般經濟學이 아닌 應用經濟學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여기서 發見된 諸現象을 綜合整理하여 이론을 體系化하고 定立하는 漁業經濟理論分野의 노력을 더 한층 경주해야 할 것이다.

## 2. 教科課程의 展開方向

한국에서 水産經濟學이란 명칭을 가지고 본격적인 研究를 시작하게 된 것은 1949년 釜山水産大學에 水産經濟學科가 설치 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이것이 定着되기도 전에 1961년 水産經濟學科가 水産經營學科로 변경되면서부터 經濟學의 研究方法으로부터 經營學의 研究로 바뀌게 되었다. 그 결과 어업전반으로부터 야기되는 社會經濟的인 문제는 등한시하게 되었고, 漁業企業 위주의 문제만을 다루는 方向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이후 계속해서 麗水水專(1979), 統營水專(1980), 群山水專(1982)에서도 水産經營學科가 新設됨으로써 漁業經濟學은 더욱 침체되고 다만 그 명칭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張設鎬 교수는 水産業을 零細水産業과 水産企業으로 大別하고 있다. 둘 다 經營目的은 營利追求에 있으나 前者는 生計主義原則에 입각하여 영위되고 있으며, 後者는 어떻게하면 事業體의 安定유지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나 지배되고 있다고 한다<sup>12)</sup>. 그리고 이 兩者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常時 사용하는 종업원수 5인 이하의 零細水産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3)</sup>. 그리고 水産經營學 研究對象으로는 零細水産業을 제외한 家計와 經營이 분리된 水産企業全般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론에 가서는 非營利水産業에 속하는 공공기업이나 수협 등의 협동조합기업도 수산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sup>14)</sup>. 이들 기업은 경제적 效率性을 추구하려고 노력하지만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11) 栗原白壽, 「農業問題의 基礎理論」, 校倉書房, 1974, p. 298.

12) 張設鎬, “水産經濟學의 本質에 관한 研究”, 「水産經濟論集」, Vol. 17, No. 1, 1986. 6, p. 34.

13) Ibid., p. 35.

14) Ibid., p. 39.

開放化時代の 水産經濟學의 課題

아니다. 非營利企業은 영리보다는 政治經濟的 논리가 우선하는데 과연 經營의 統一原則이나 原理가 적용 가능한가가 의문시된다.

한편 孔龍植 教授는 水産經營學은 經營學과 학문적 同一性을 같이 하면서 水産이란 형용사로 인하여 수산업의 經營學的側面을 觀察領域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5)</sup>. 그러면서도 그는 “資本主義經濟의 대표적인 經營體는 會社經營體 특히 대규모 회사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러한 논리에 직접적으로 따르면 水産經營學의 대상은 遠洋漁業을 주로 經營하고 있는 會社經營體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 경우 “특정 漁業에 치중함으로써 다양한 水産經營의 全體像을 看過할 위험성을 內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水産經營學의 연구대상을 個人經營體로 한정시키고 “수산경영학의 개념을 漁家經營體의 經營狀況에 適合的이고 또한 여기에 그 經營의 보편성을 특징적으로 파악코자하는 의미”로 조심스럽게 接近하고 있다<sup>16)</sup>. 이와 같은 새로운 시도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무엇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구태여 經營學을 漁業全般에 도입해야 하며 그 實益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이 漁業經濟나 經營에 관련된 學科가 창설된지 30년이상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研究對象에 관한 학문적인 合意도 없는 상태로 정제하고 있다. 이에 활기를 불어넣고 더욱 發展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教科科目의 展開方向을 檢討해 보기로 한다. 日本의 漁業經濟에 관한 教科科目은 東京水産大學의 경우 우리와 약간 다른 講座制를 採擇하고 있다. 漁業의 社會科學的 研究는 資源管理學科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이 學科는 우리나라 大學의 학과수준에 해당하는 資源管理 시스템강좌와 水産資源經營講座로 分離되어 있다. 前者는 資源問題를 기술적으로 接近하고 있으며, 後者가 社會科學的 研究를 담당하고 있다. 후자는 大學院課程에서 다시 水産經營專攻과 水産經濟政策專攻으로 細分되고 있다. 東京水産大學의 學部教科課程을 보면 <표 IV-2~4>와 같다.

<표 IV-2> 敎養 科目

|           | 社會科學       | 人文科學       | 自然科學       | 外國語        | 保健·體育    | 계           | 社會科學科目                          |
|-----------|------------|------------|------------|------------|----------|-------------|---------------------------------|
| 개설<br>단위수 | 24<br>(12) | 24<br>(12) | 20<br>(10) | 48<br>(24) | 4<br>(2) | 120<br>(60) | 社會學 I·II<br>人文地理學 I·II, 法學 I·II |
| 졸업<br>단위수 | 12<br>(6)  | 12<br>(6)  | 8<br>(4)   | 12<br>(6)  | 4<br>(2) | 48<br>(24)  | 經濟學 I·II, 歷史學 I·II<br>政治學 I·II  |

주: ( )는 과목수임.

<표 IV-3> 專攻 科目

|       | 필수<br>과목 | 선택 과목 |     |     | 자유*<br>선택 | 총계    |
|-------|----------|-------|-----|-----|-----------|-------|
|       |          | 必須    | 專攻  | 소계  |           |       |
| 개설단위수 | 22       | 28    | 131 | 159 |           | 181   |
| 취득단위수 | 22(5)    | 16(4) | 32  | 48  | 12        | 82(9) |

주: ( )는 반드시 技術科目으로 취득해야할 단위수임

\* 는 소속학과의 선택과목 및 타학과의 필수 선택과목 중 자유로 선택.

15) 孔龍植, “水産經濟學의 對象規定에 관한 試論的考察”, 「水産經濟論集」, Vol. 16, No.2, 1985. 12, p. 13.

16) Ibid., p. 16.

수산경영론집

<표 IV-4>

社會科學 關聯科目

| 基礎分野             |   | 漁業經濟, 經營分野 |    |               |   |
|------------------|---|------------|----|---------------|---|
| 經濟學 I·II(교양)     | 4 | 水産企業論      | 2  | 漁業管理論         | 2 |
| 日本經濟論            | 2 | 食料經濟論      | 2  | 魚家經濟論         | 2 |
| 經營學              | 2 | 漁業制度論      | 2  | 漁業經濟統計學       | 2 |
| 會計學              | 2 | 水産流通經濟論    | 2  | 漁業勞動論         | 2 |
| 意思決定論            | 2 | 水産經濟史      | 2  | 水産經濟政策        | 2 |
| 民法               | 2 | 水産物價格變動論   | 2  | 漁業協同組合論       | 2 |
| 商法               | 2 | 水産國際關係論    | 2  | 産業技術論         | 2 |
| 海洋國際法            | 2 | 水産經濟調査     | 1  | 세미나 I·II      | 4 |
| 公海關係法            | 2 | 卒業論文       | 10 | 資源管理學概論 I(필수) | 2 |
| 8(9)과목, 16(20)단위 |   | 18과목 45단위. |    |               |   |

주: ( )는 교양과목을 포함한 숫자임

東京水大의 졸업학점은 130으로 우리나라보다 10학점 적으면서도 이 중 卒業論文 10학점과 이에 관련된 세미나 4학점을 제하면 실제 授業單位數는 116學點에 불과하다. 이 중 교양과목의 48학점을 제하면 專攻學點은 68학점만 取得하면 된다. 이와 같이 日本은 학부과정에서도 졸업논문을 중시하고 많은 比重을 두고 있는 것이 韓國과 다른 학풍의 차이인 것 같다. 이들은 졸업논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漁業現場에 직접 나가 調査를 수행하고, 여기에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졸업논문을 작성하고 있다. 현장중심의 實用主義의인 교육을 하는 것이 우리와 다른점이라고 할 수 있다.

釜山水産大學과 東京水産大學의 교과과정을 비교해 보면 각 大學이 어느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표 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日本은 정반대의 方向으로 나가고 있다. 즉 日本은 현장중심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理論中心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인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漁業現場에서는 漁業이 존재하기에 있다고 아우성인데, 學界에서는 研究領域論爭만 하고 있을 뿐 아무런 문제해명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표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日本은 社會科學關聯 과목 중 어느 것이 漁業經濟學 分野이고 어느 것이 漁業經營學 分野의 것인지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것이 바로 漁業의 특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와 같이 현실을 輕視하면서 理論의 世界에 머무른다면 새로운 理論을 개발할 수도 없고, 漁業問題도 해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日本처럼 너무 현실문제에 집중하다보면 理論을 경시하는 경

<표 IV-5>

韓日間 教科課程 比較

|          | 釜山水産大學1) | 東京水産大學2) |
|----------|----------|----------|
| 基礎關聯分野   | 106(67)  | 16(9)    |
| 漁業經濟經營分野 | 37(23)   | 45(25)   |
| 漁業技術分野   | 15(10)   | 120(66)  |
| 계        | 158(100) | 181(100) |

자료: 1) 張設鎬, 朴泳炳, "韓國의 水産經營學教育과 研究", 「水産經營論集」, Vol. XVII, No. 2, 1986. 12. P 114.

2) 東京水産大學, 學生便覽, 1992.



향으로 흐르기 쉽다. 日本은 경제가 이미 高度成長하기 이전에 漁業經濟에 관한 理論의 틀을 거의 구축해 놓았고, 이를 토대로 理論을 發展시키면서 현실의 漁業問題를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學科名稱에 구애받지 말고 理論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方向으로 과감한 敎科課程改編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隣接 및 補助學問의 적극적인 導入도 적극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 V. 結 論

漁業經濟學의 전개의 基本方向은 漁業經濟理論을 토대로 漁業關聯主體가 직면하는 각각의 現代의 課題를 정확히 認識함과 더불어 課題解決을 위한 깊은 方法論的 研究가 수해되어야 한다. 經濟가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漁業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한다는 전제하에서 어업관련機關이나 團體는 물론 漁業經濟學研究者는 과감한 意識轉換과 분발이 요청되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漁業問題는 漁業部門 단독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고, 國民經濟속에서 國民의 合意하에 國民과 더불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研究姿勢下에서 漁業經濟學은 전통적인 關聯 및 補助學問과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 더 나아가 地域開發理論, 漁村社會論과 같은 필요학문을 과감히 도입하여 이들과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研究體制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開放化時代에 漁業經濟研究者는 어장을 지금의 生産의 場에서 生産과 消費의 場으로, 자원고갈적인 漁業에서 資源 및 環境保存의 漁業으로, 전근대적 沿岸漁業에서 근대적인 漁業으로, 단순한 原始産業에서 高度成長段階의 기술집약적인 産業으로, 生存産業에서 國民의 精神健康과 地域文化維持 및 福祉産業으로 활용할 수 있는 輿件을 助成해 나가야 한다. 즉 漁業 및 漁村의 多面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어업정책결정자는 漁業의 이러한 가능성을 認識하고 이를 뒷 받침하는 충분한 研究人力과 豫算의 확보는 물론 관련 漁業法規나 制度를 과감히 改善해야 할 것이다. 또한 漁業關聯機關이나 團體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한국의 漁業과 食文化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一例로 日本의 24개 水産關聯團體는 과잉적이고 무차별적인 世界環境團體들의 壓力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에 對應할 非政府組織團體를 결성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漁民自身도 海洋環境이나 漁業資源保存問題는 단순히 漁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存亡과 관련된 문제라는 인식에서 자신의 행동이 漁業은 물론 전 인류의 생명에 적지 않은 影響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自覺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漁業關聯團體나 漁業經濟學研究者들은 이러한 事實을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 開放化時代에 밀려오는 水産物輸入自由化問題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 문제는 消費者保護側面에서 뿐만 아니라 자원보호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이다. 農業에서는 농산물 수입자유화가 農業基盤自體를 파괴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지만, 漁業에서는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 다만 단기적으로 어민문제가 야기되지만 그 충격을 슬기롭게 완화시킨다면 장기적으로는 沿岸漁業을 강화시키는 方向으로 움직일 것이다. 또한 近海와 遠洋漁業도 輸入自由化에 대

치하기 위하여 더욱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스스로 재편하게 될 것이다. 漁業이 存續하고 發展해야만이 漁業經濟學도 發展할 수 있는 것이다. 漁業의 維持發展側面에서 水産物輸入自由化問題는 검토되고 그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漁業이나 漁村問題는 生産性向上에 의한 所得增大政策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漁業 및 漁村이 生存維持機能이 끝난 현 상태에서는 生活環境造成問題가 더 시급한 課題인 것이다. 이 문제는 水産廳 단독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地域開發 측면에서 어촌의 特性化 및 活性化가 논의되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漁民所得이 증가하면 할수록 오히려 漁村을 떠나는 사람이 증가할 것이며, 어촌의 空洞化現象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展望된다. 따라서 漁業經濟學에서도 地域漁業論, 地域開發論 및 漁村社會學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參考文獻

- 張設鎬, “水産業 = 水界産業의 分類에 대하여”, 「水産經營論集」, Vol. 10. No.1, 1989. 6, pp 1 - 16.
- 張設鎬·朴泳炳, “韓國의 水産經營學教育과 研究”, 「水産經營論集」, Vol. 17, No. 2, 1986. 12, pp. 107 - 143.
- 張設鎬, “水産經營學의 本質에 관한 考察”, 「水産經營論集」, Vol. 17, No. 1, 1986. 6. pp. 19 - 39.
- 孔龍植, “水産經營學의 本質에 관한 考察”, 「水産經營論集」, Vol. 17, No. 1, 1986. 6. pp. 19 - 39.
- 邊衡尹, 「韓國經濟論」, 裕豐出版社, 1989.
- 社團法人水友會, 「現代韓國水産史」, 1987.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農政 30年史」, 1988.
- 賴平, 「國際化時代의 農業經濟學」, 富民協會, 1992.
- 農林統計協會, 「平成3年度漁業白書」, 1992.
- 人本庸夫, 「漁民」, 北斗書房, 1992.
- 小野征一郎·堀口健治, 「日本漁業 經濟分析」, 農林統計協會, 1992.
- 宮澤健一, 「産業 經濟學」, 東洋經濟新報社, 1992.
- 矢野暢, 「國際化 意味」, NHKフ”シクス, 1992.
- 井野隆一·田代洋一, 「農業問題入門」, 大月書店, 1992.
- 長谷川彰·廣吉勝治·加瀬和俊, 「新海洋時代 漁業」, 農産漁村文化協會, 1988.
- 中橋興·吉木武一, 「明日の日本水産業」, 海文堂, 1988.
- 藤谷築次, 「農業政策의 課題と 方向」, 家の光協會, 1988.
- 清光照夫·岩崎壽男, 「水産政策論」, 恒星社厚生閣, 1986.
- 長谷川彰, 「漁業經濟論」, 昭和後期農業問題論集24, 農文協. 1984.
- 清光照夫·岩崎壽男, 「水産經濟」, 恒星社厚生閣, 1982.
- 大海原宏 外 14名, 「現代水産經濟論」, 北斗書房, 1982.
- 岩切成郎 外 4名, 「漁業經濟論」, 文人書房, 1964.
- 岡本清造, 「水産經濟學」, 恒星社厚生閣, 1962.
- 廣吉勝治, “漁業經濟關係研究動向”, 「漁業經濟論」, 24권 3.4호, 1980. 10, pp. 30 - 46.
- 小野征一郎, “漁業經濟研究 課題”, 「漁業經濟論」, 23권 3.4호, 1977, 10, pp. 1 - 22.
- 祖田修, “日本經濟의 展開と 農業·農村의 新しい 役活”, 「農村問題研究」, 85호, 1986. 12, pp. 174 - 183.
- 日本農業經濟學會, “國際化時代에 ける·農業·農村問題”, 「農業 經濟」, 1989년 臨時增刊號.
- 日本農業經濟學會, “現代社會 農業”, 「農業 經濟」, 1990년, 臨時增刊號.

## **The Problem of Fisheries Economics Arising from the Liberalization of Korean Economy**

Seung - Rae Lee

### **Summary**

In this paper, fishery economics is reviewed to extend a basic opportunity for developing new fishery economics an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import liberalization on the fish trade structure of Korea.

The principle outline of extensions emphasis to realize the modern fishery problems based on fishery economics and develop the practical methodology in order to analyze the impacts of the import liberalization on the fishery and fishermen welfare. During the process of export - oriented industrilization, the role and position of fishery in the economy is changed dynamically. When faced with the imperative of the role and position of fishery in the economy, fishery economists and domestic policy makers must decide how to organize themselves for solving fishery problems under the new regime in the import liberalization on the fish trade. Fishery problems impacted by the new regime can not be solved by fishery itself but be solved by the centralized efforts of all contributors in national views. Therefore the new systematic analytical methodology must be develop and the traditional fishery economics must be related to th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fishery sociology as subsidiary theories specialized.

Due to the impacts of the import liberalization on the fish trade structure, fishery economists face with radical changes in the domestic fishery : a place of the resources harvest to place of the combination resource harvest and its demand, a fishing as a resource exploitation to a fishing as a resource management, a traditional small scale costal fishing to a modernized and scaled fishing, fishery using the given natural resource itself to fishery as technology intensive industry, and a food supply industry to a welfare indusry based on the regional and economic resource and social environment. As these changes, fishery and its community' s regional and economic resource and social environments as multiple roles of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re emphasized in fishery economics under the new regime in the import liberalization on the fish trade.

Furthermore, domestic policy makers and administrators in a public sector must realize the above radical changing trends in fishery and understand a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in

fishery and develop a new fishery structure focusing on the fishing system and the fishery laws. As this point, they make efforts to improve and develop fishery as a food supply industry. Japan, for example, ha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to conflict the problem of international fishery such as a movement of a civil environmental protection. Also fishermen in Japan already realized conservation and pollution problems in fishing as fundamental issues of human being.

In focusing on these realizations, fishery economists and organizations must emphasize a role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in structuring public sector collective relationships in fishery.

Also they cope with difficulty of the import liberalization on the fish trade positively and this difficulty takes into account after due a consideration of conserving domestic resources and fish consumers. Generally, the effects of the import liberalization of agriculture products has dampening effects on the production and farm income through reduction of prices of farm products in the domestic market. The impact of complete liberalization of farm products seems serious. But these effects on the fish trade are differ from that of agriculture and may enhance domestic fishery including a costal fishery, an inshore fishery and a deep-sea fishery in long run if this difficulty is solved by a centralization of the fishery resource management responsibility in professional skills, specialized knowledge, quick access to relevant data, and quantities of time and energy. Such a pinpointing of fishery resource management responsibility for difficulty of the import liberalization on the fish trade reconstructs a domestic fishery strongly.

Finally it is realized that the public income policy based on the fish products in the domestic market is not enough to remove problems of fishery and fish community practically. In fishery, a critical problem is not occurred by the role of fishery as food supply industry but the well-being of fisherman and fish community considering the given regional fishery resources and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s. This critical fishery problem can not be solved by efforts of an administration but be solved by centralized efforts of all contributors in national views. These centralized efforts focus on the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regional specialization in fishery depended on the given regional and social environments. Otherwise, a public income policy may accelerate the out-migration of fishing community people to urban sector and further reduce the rate of self-sufficiency of fish and weaken fishery in the domestic market.

It is likely to premature to conclude that fishery economists emphasis to include a regional fishery, a regional development and a fishery sociology and the specialized theories of these are integrated into one fishery economics under the new regime in the import liberalization on the fish trade structure.

## 수산경영론집 투고요령

1.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한국수산경영학회 회원에 한한다. 다만 회원과 공동연구자와 초청된 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2. 연구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3. 논문의 게재 여부는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논문의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논문을 수록한 디스켓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원고는 3부씩 제출한다(원본 1부 및 디스켓 포함).
5.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본 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6. 원고의 작성은 국문 또는 국한문혼용을 원칙으로 하며 가능한한 어려운 한자의 사용을 피하고,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한 국문으로 쓰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외국어로 직접 쓸 수 있으며, 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어부서를 붙일 수 있다.
7. 원고는 활글(1.5 또는 1.52판)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A4용지에 줄간격 8로 타자하여 25매이내로 한다. 부득이하여 25매를 초과할 경우, 부가되는 인쇄비용은 기고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원고 제1면에는 국문 및 영문으로 원고 제목, 투고자의 성명 및 소속을 명기한다.

예) 고도성장이후의 한국연안어장 이용관계의 변모(II)

— 어업권의 귀속에 관하여 —

김 병 호

A Study on the Change in Utilization System of Coastal Fishing

Ground in Korea after High Economic Growth(II)

— Focusing on the Possession of Fisheries Right —

Kim, Byung—Ho

9. 원고 제 2면부터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논문의 국문초록(500자이내)과 영문초록 (100단어이내) 및 목차를 표시한다.
10. 장, 절의 표시는  
I.  
I.1  
I.1.1  
과 같이 한다.
11. 모든 표와 그림은 백지에 선명하게 그리고 해당번호(예: <표 1-1>, <그림 1-1>)와 제목 또는 설명을 붙여야 한다. 표와 그림의 수는 가능한한 줄이도록 한다.
12. 본문 각주는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내용은 논문의 제일 끝장에 작성한다.

13. 수학적식은 일련번호를 ( )에 넣어 식의 오른쪽에 표기한다.  
 예)  $Y = X + aZ$  (1-3)
14. 참고문헌은 그 전부를 저자명에 따라 국문은 가나다순으로, 영문은 ABC 순으로 번호를 붙여 본문이 끝난 뒤에 기재하고, 본문 중 참고문헌이 인용된 부분에는 ( )속에 저자 이름과 연도, 연수를 표기한다.  
 보기 : ...이다(홍길동, 1989. 114).
15. 참고문헌은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일련번호 없이 저자명, 논문제목, 간행물명(이탤릭체로 표시), 권(Vol), 호(No), 연도, 면(page) 순으로, 정기간행물이 아닌 경우는 저자명, 도서명(이탤릭체로 표시), 출판 회수(2회이상), 권(2권이상), 출판지, 출판사명, 출판년도의 순으로 기재한다.  
 예) :  
 Salop, S. C., "Monopolistic Competition with Outside Goods," *Bell Journal of Economics*, Vol. 10, No. 1(Spring 1979), 141-156.  
 Davis, Gordon B. and Margrethe H. Ols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Conceptual Foundations, Structure, and Development*, 2nd ed., New York : McGraw Hill, 1985.
16.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